

서민들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한숨

광주전남 1월 소비자물가 2%대 상승 장기불황·달걀파동에 신선식품 급등 정국혼란 틈타 식료품값 인상도 러시

신선식품과 생필품 가격이 전정부지수로 오르면서 서민들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특히 설 명절과 달걀 파동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대로 상승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식료품과 주류가격 인상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6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광주 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2.54(2015년=100)로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2.4% 각각 상승했다. 채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4%, 전년동월대비 3.3%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2.8%, 전년동월대비 14.9% 각각 상승했다.

전남지역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2.58(2015년=100)로 전월대비 1.3%, 전년동월대비 2.1% 각각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8%, 전년동월대비 2.5% 각각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5.0%, 전년동월 대비 10.0% 각각 상승했다.

국제유가 변동 여파로 그간 물가안정세에 기여했던 석유류도 1년 전보다 4.7% 뛰어 전체 물가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다. 석유류 가격이 뛰면서 교통, 공업제품 등 관련 물가도 덩달아 상승했다. 반면 전기·수도·가스는 -1.4% 하락했다.

호남통계청은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따른 ‘달걀 대란’ 여파가 반영되면서 농·축·수산물 물가가 뛰었고 유가 반등에 따라 석유류 가격이 인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설 대목이 지났음에도 식재료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비축 물량 공급 처방도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통계(KAMIS)에 따르면 배추(1포기) 가격은 3,9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평년(2015년) 가격의 90% 이상 오른 가격이다. 양배추(1포기)는 설 전보다 2.3% 오른 5,083원에 판매되고 있다.

한우 갈비(100g 1등급)는 4,900원, 한우 등심(100g 1등급) 7,613원을 기록했다. 이는 평년보다 각각 13.4%, 13.9% 높다.

장미꽃이 물가의 지표가 되는 식품회사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주요 생필품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농심은 전체 28종 라면 제품 가운데 18종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5.5% 인상했다. 농심의 가격

인상은 라면값 인상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오뚜기, 팔도, 삼양식품 등은 아직 가격을 하지 않았다. 다만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마지막으로 가격을 올렸고 농심이 가격을 인상한 만큼 조만간 라면 값 인상에 동참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식음료 업계의 가격 인상은 하이트진로가 소주 값을 올린 이후 계속되고 있다. 제과 및 빙과 업체에 이어 지난달부터 맥주와 음료값, 빵, 라면까지 가격이 올랐다.

일부에서는 탄핵정국 여파로 정부 당국의 감시가 느슨해지자 기습 인상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지역 대형마트 관계자는 “라면 등 서민 식재료 관련 업체들이 가격 인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서민들이 가계부담은 심화될 것이다”며 “커피와 냉동식품 등도 가격 인상에 동참할 조짐을 보이는 등 올 상반기 주요 생필품의 가격 인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중소기업청 국장급 인사 단행

광주전남중기청장에 김진형 부산청장 임명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대대적인 국장 인사를 단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인사는 본청과 지방청이 협조해 중소기업 수출과 창업 확대 등 상반기부터 내겠다는 취지다.

중기청은 6일자로 6명의 국장을 새롭게 임명했다. 이번 인사로 본청과 지방청장 등 국장급 자리 12개 중 절반에 이르는 자리가 교체됐다.

신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에 김진형 부산중소기업청장(58)이 임명됐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 경동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석사, 미



국 워시번대 법학박사를 받았다.

김 청장은 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경제기획원 행정예산담당관실 사무관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청 자금지원·벤처정책과 서기관, 경영지원국장, 경기지방청장, 대통령비서관, 중소기업정책국장, 부산중소기업청장 등을 역임했다. 김연환 전 청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교육과전했다.

/황애란 기자

“광주공장 제2의도약 기틀 마련”

신임 정찬민 기아차 광주공장장

기아자동차 신임 광주공장장에 정찬민(55) 전무가 6일 임명됐다.

정 신임 공장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 서석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현대자동차에 입사, 1999년 1월부터 기아차에서 근무 중이다.

경영지원부문과 생산현장을 두루 거친 전문가로 최근까지 기아차 경영지원부문장을 지낸 바 있다.

정 공장장은 “광주공장 제2도약을 위해



기동력과 품질 향상 활동에 역점을 두고 안전예방과 의식향상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광주공장의 지적 성장을 다져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있는 공장으

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경제고용진흥원, 에코혁신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신현구)은 환경경영 전문 컨설팅사인 스마트에코(주)와 함께 지역에코혁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에코혁신사업은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을 통한 폐기물저감과 에너지절감 등 경제성과 창출을 목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광주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30개사를 지원한다.

사업내용으로는 청정생산 도입을 통한 에너지, 원부재, 폐기물 배출 저감 등 기업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진단해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한다.

신현구 경제고용진흥원장은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청정생산 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 환경개선 및 녹색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금호타이어, 새내기 직원과 소통 강화

지난 4일부터 2주간 광주 생산·영업현장 실습

금호타이어는 최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예술가의 집’ 공연장에서 2017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금호타이어 하우스콘서트’ 행사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신입사원들과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하우스콘서트에는 지난 1월 금호타이어에 입사한

신입사원들과 분사 및 연구소 임원이 함께 참석해 반도네오, 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진선트리오’의 연주와 혼성 합창 그룹 ‘히니보이스’의 공연을 관람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하우스콘서트는 무대와 객석의 구분 없이 관객들이 연주자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연주자의 숨소리와 동작 하나하나를 생생

하게 느낄 수 있는 작은 음악회로 2002년부터 최근까지 520회 이상의 수준 높은 공연을 진행해왔다.

박유성 금호타이어 HR담당 상무는 “신입사원들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금호타이어의 기업문화를 체득하고 임원들과 격의 없이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입사원들과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금호타이어는 최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예술가의 집’ 공연장에서 2017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금호타이어 하우스콘서트’ 행사를 가졌다.

전남진흥원, 해커톤 대회 시상식

전자동화책 ‘잃어버린 이야기를 찾아서’ 대상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은 최근 목포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에서 ‘스마트 창작터 창업프로젝트 해커톤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해커톤 대회는 콘텐츠 및 웹·앱 등 문화산업과 ICT융합분야의 창업아이템을 발굴과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한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됐다.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시장 검증과 평가를 통해 총 9팀의 우수 아이템을

선발했다.

대상은 ‘잃어버린 이야기를 찾아서’의 이계선씨가 차지했다. 이씨는 지역 내 고유의 설화와 전설을 발굴해 활아버지, 할머니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전자동화책을 제작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미생물을 활용해 후발효차를 제작하고 상품화한 이현정씨의 ‘떡술’과 육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

결시켜주는 이동민씨의 ‘육아품앗이’ 어플리케이션이 선정됐다.

이밖에도 ▲한살이야기(한혜경) ▲다기능 온열 빨래건조대(윤성민) ▲지역공유경제 플랫폼 울드잇(조인화) ▲헬스오(정다환) ▲스마트 이사 매니저(김관도) ▲모다폰(송상근) 6팀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오창렬 진흥원장은 “이번 해커톤 대회는 문화콘텐츠뿐만 아니라 식품과 건강 등 우리 실생활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아이템이 발굴됐다”며 “선정된 아이템들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겨울상품 알뜰하게 구입하세요”

백화점 모피 등 최종가 판매

지역 백화점들이 겨울상품 저변에 나섰다. 좀처럼 얼리지 않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최종가전 행사에 돌입했다.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는 오는 8일까지 여성 코트 최종가 특집전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1층 이벤트홀에서는 스위트스, 요하네스, 크레송 등 여성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올 겨울 유행상품인 모피, 패딩 물량을 확보해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김정현)도 2월

한달간 리폼 서비스를 진행한다. 또 중고 모피를 백화점상품권으로 매입, 리폼해 100만원 초반에서 후반대의 가격으로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최상주 여성팀장은 “구식 디자인의 모피코트를 리폼하거나 모피 자투리를 활용해 조끼나 모자, 머플러 등 다양한 퍼 아이템으로 재탄생시키는 고객이 많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Treksta

시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완주의 조건, 열정으로 달려서
같이 달려라

권동철 지음 | 292쪽 | 값 13,800원 | 정림비즈북

신발업계의 스티브 잡스,
그가 만들면 세계 최초가 된다!

모든 것이 멈추려는 순간, 열정으로 다시 시작하라
대한민국 토종 브랜드 트렉스타 권동철의 도전과 성공

- 초판에 한정하여, 책에 삽입된 교환권을 가져오시는 모든 독자님께 트렉스타가 특별 제작한 만다나 스카프를 드립니다. (1인 1매)
- 교환 장소 : 트렉스타 전국 매장 (매장 안내 1599-0055)

